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업무현황보고

2004. 7. 6

통 일 부

목 차

I. 일반현황1

II. 주요업무 추진계획2

1.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2

2. 북핵문제 해결 노력3

3. 남북회담 추진4

4. 3대 경협사업6

5. 대북 인도적 지원9

6. 이산가족 교류11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13

8.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실시15

9. 경수로사업 재개 노력17

10. 남북협력기금 운용19

III.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21

I. 일반현황

1. 임 무

- o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장리”

2. 기능 변천

- o 1969. 3. 1 국토통일원 개원
- o 1970년대 : 조사연구, 교육·홍보 중심
 - 통일교육원 발족('72. 5. 1)
- o 1980년대 : 남북대화 기능 추가
 - 남북회담사무국, 중앙정보부로부터 편입('80.10.20)
- o 1990년대 : 통일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교류협력 기능 추가
 - 통일원으로 개칭, 부총리부서로 격상('90.12.27)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95.1.23)
 - 통일부로 개편('98.2.28)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99.7.8)
- o 2000년대 :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남북회담 기능 확대
 - 남북출입사무소 개소('03.11.20)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 수행
-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북핵 상황의 악화를 방지

나.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 「경제」와 「안보」분야의 균형 발전 도모
 - 개성공단 건설·철도-도로연결·금강산관광특구 등 3대 경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장성급 군사회담 정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 협의
- 사회문화 교류 확대, 인도적 문제의 적극적 해결 노력 등

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국회와의 사전·사후 긴밀 협조, 국민여론의 적극 수렴 등을 통해 투명성 강화 및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 조성

2. 북핵문제 해결 노력

가. 추진현황

- '02.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
- 국제적 협력과 함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 대북 설득으로 6자회담 진전에 기여
 - 제3차 6자회담(6.23-26)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서 “동결 대 상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본격 협상단계 진입 기반 마련
- 그러나 아직까지는 HEU문제, 핵동결 및 폐기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참가국간 입장차이가 존재

나. 추진계획

- 제4차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강화
 - 조속한 시일내 개최기로 한 제3차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입장 관철을 위한 준비에 만전
-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북 설득으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 남북 경협 등 대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건 조성

3. 남북회담 추진

가. 추진현황

○ '04.7.5 현재 총 25회 당국간 회담 개최(18건 합의문 채택)

- 정치·군사분야 9회, 경제분야 13회, 적십자·체육분야 3회 등 분야별 실무회담 확대
- 서울·평양, 개성·파주, 금강산·설악산 등 회담장소의 다변화 추구

* '03년 총 38회 개최(정치·군사 13회, 경제 17회, 적십자·체육 8회)

나. 추진계획

○ 금년도 남북회담의 중점추진과제를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으로 설정

-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총괄 관리하고 제도화하는데 중점
-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회담문화 정착

○ 남북장관급회담은 명실상부한 남북관계 중심협의체로서의 역할 수행

- 남북경협,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간 모든 현안을 협의·해결
- 핵문제 해결과정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의제 개발
- 금년내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가동, 민간급 교류협력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8.3~6, 서울) 개최 예정

- 군사분야 회담을 점차 확대, 평화와 협력의 균형발전 추진
 -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와 그 부속합의서(6.12)의 성실한 이행
 - * 서해상 함정간 상시 통신망 유지, 군사분계선 선전수단의 단계별 제거 등
 - 향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방안 협의·추진
- 경제분야 회담은 남북 공동번영의 실질적 성과도출에 주력
 - 「경추위」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
 - 3대 경협사업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남북간 제도문제 협의·타결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8.31~9.3, 서울) 개최 예정
-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 노력 지속 추진
 - 면회소 건설관련 실무문제 협의 추진
- 남북체육회담은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추진 및 남북체육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 도모
 - * 아레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6.23~25, 북경)에서 선수단 호칭, 깃발, 선수단가, 복장 등 5개항 협의

4. 3대 경협사업

가. 개성공단 건설사업

- 개성시 일대 2,000만평(공단 800만평)을 공단과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사업
 - 공단지역은 3단계에 걸쳐 개발(100만평→200만평→500만평)
- 현재는 시범단지(2만 8천평) 기업 입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
 - 136개 입주 신청기업 중 15개 업체선정(6.5) 및 계약 체결(6.14)에 이어 개성 현지 설명회(6.16) 등 실시
 -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발족(6.29),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완료(6.30)
- 하반기 시범단지 기업입주, 제품생산 예상
 - 정부는 「지원단」을 설립,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단개발 지원
 - 공단 관리기관도 창설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발족, 입주기업 지원
 - 북한과 협상중인 전력·통신 공급문제를 조기 타결, 9월까지 상업적 방식으로 개성공단에 공급
-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및 내부기반시설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06년말 본격 기업입주 목표)
 - 분양가 인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기반시설 건설 지원
 - * 용수·폐기물 처리장 등 내부기반시설(1,095억원)은 무상지원,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496억원)은 장기저리 대출

-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을 결합하는 상생의 남북협력사업
 - 군사적 대치구역인 「개성-문산 축선」을 경협현장으로 개방,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

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철도·도로 개통을 위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중
 - 우리측은 경의선 공사 완료('03.10), 동해선 노반공사 진행중
 - 북측은 철도·도로 노반공사 완료('03.12.31), 철도 궤도부설 및 도로 포장공사 진행중

<공사 진척상황>

(‘04.7.3 현재)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경의선	철 도	공사완료('02.12.31)	본선 궤도부설완료, 역내 공사
	도 로	공사완료('03.10.31)	1차 포장공사 중(80%)
동해선	철 도	노반공사 중(19.2%)	본선 궤도부설완료, 역내 공사
	도 로	노반공사 중(84.2%)	1차 포장공사 완료

- 철도·도로 북측 구간 공사 관련 소요 자재·장비 제공
 - 궤도, 침목, 전기·신호·통신 계통 설비, 역사(6개소) 개보수 및 신축용 기자재 등 총 1억 5백만불 범위내 제공(차관방식)
 - * 기술지원(현재까지 총 18회) 과정에서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 가로등, 중앙분리대 등 도로 안전시설물 지원과 역사 건축 설계 일정에 합의('04.7.2)

- 2004년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 철도 시험 운행 실시 예정
 - 도로개통구간은 통일대교-개성(4차선, 12km), 통일전망대-온정리(2차선, 24km)
 - * 도로 개통의 의미를 감안, 개통식 행사 개최 준비
 - 철도 시험운행은 남북이 합의하는 가능한 구간에서 실시
- 철도·도로 연결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및 전반적인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는 남북간 물적 인프라 구축으로서 큰 의미
 - 대륙 횡단철도와의 연결 등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토대 마련

다. 금강산 관광사업

- 금강산관광사업은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03.9월 이후 육로 관광이 정례화되면서, 관광사업 지속 기반 조성
 - '04.3월부터 관광객 월 15,000명 상회
 - 당일관광('04.7.3부터)·1박2일 관광('04.6.19부터) 실시중
→ 향후 설악권과의 연계관광으로 개발
- 북측은 '02.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 '03.10월 관광특구 경계 확정(600만평)에 이어, 현재까지 8개 하위규정 발표
- 특구개발 사업 조기 착수 유도
 - 우리측 사업자는 '03.7월부터 세계관광기구(WTO), 금호엔지니어링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자는 북측과 협의후 사업 착수

5. 대북 인도적 지원

가. 추진현황

-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 의료,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
 - 비료 20만톤 지원 (700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67만불)
 - UNICEF를 통해 어린이·임산부 등 지원 (100만불)
- 민간지원은 정부지원과 상호보완 구도하에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활성화를 지원
 - 농업증산,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33개 단체가 123개 지원사업을 추진중
 - 모범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 (25개 사업, 100억원)
- 특히 용천재해(4.22) 관련, 민·관협력하에 구호와 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 활동 전개
 - 정부내 「용천재해대책기획단」을 구성·운영
 - 한적창구로 구호품과 복구자재 등 지원 (427억원)
 - 「용천돕기추진본부」등 민간창구로 280억원 상당 지원

나. 추진계획

- 대북차관 쌀 40만톤과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 참조

-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민·관정책협의회구성·운영
 -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33개 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민관의 역량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활용

6. 이산가족 교류

가. 추진현황

- 6.15 정상회담 이후 매년 2-3차례 상봉행사 개최
 - 3.29~4.3간 제9차 상봉행사 진행
 - * 정상회담 이후 9차례 행사를 통해 상봉 9,020명, 생사확인 21,414명 성사
 - * 정상회담 이전에는 한차례('85년) 남북 각 50명 이산가족 교환 방문
-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노력 지속
 - 상봉행사 정례화,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류 확대, 면회소 설치·운영 등에 역점
 - *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5.24-25, 금강산)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개별교류 지원
 - * 금년 상봉 87건, 생사확인 91건, 서신교류 410건

나. 추진계획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 7.11~13, 우리측 500명 방북, 북측가족 100명 상봉
 - 7.14~16, 우리측 100명 방북, 북측가족 300명 상봉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 전담 건설·운영에 합의('03.11.6)한 이후,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 측량 및 지질조사에 대한 복측 협조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 예정
 - * 연면적 6,000평, 12층 건물, 1,000명 수용 규모
-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운영문제 등 합의 도출
-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 지속
 - 당국, 적십자회담 등을 통한 복측의 호응 촉구
 - 근본적 문제 해결노력과 병행,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상봉과 생사확인 적극 주선
 - * 9차례 상봉을 통해 남북자 10가족과 국군포로 7가족 상봉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가. 추진현황

- 금년 6월말 현재 입국자 760명 (작년대비 28% 증가)
 - '02년부터 매년 1,000명 상회, 현재 4,900명 국내거주
 - 가족단위 입국자 증가추세
 - * 가족동반 탈북자의 경우, 단신탈북자에 비해 정착과 자립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 국내입국후 탈북동기 등의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
 - 심리안정, 남한사회 이해, 기초 직업훈련 등 2개월간 사회정착교육 이수
 - 하나원내 공중보건의 배치, 교육생 건강관리 전담
 - 수료시 취직, 주민등록, 주택알선, 초기정착금 지급
 - * 세대별로 영구임대주택 알선 및 정착금으로 세대주 2,800만원, 부양가족당 800만원을 5년간 분할지급
- 거주지 편입후 지원 (5년간)
 - 신변보호, 취업보호, 거주지보호 담당관 지정
 - 직업훈련, 취업보호제 (고용주에게 임금 일부 지원)
 - 초중고 및 대학 재학생에게는 학비 지원
 - 사회안전망에 의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나. 추진계획

- 자립능력과 의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선
 - 인센티브 방식의 정착금 지급 (전체 지급수준 유지)
 - 취업능력 개발과 실질적 취업기회 확대 방안 강구
-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 설립 및 사후관리
 - 편입학전 적응을 위한 디딤돌 학교 설립
 - 무연고 청소년 생활공동체 지원
 - * 12개 종교·복지단체에서 73명 보호중
- 민·관, 지역사회간 정착지원 협력체제 구축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확대 강화
 - * 현재 탈북자 밀집거주지 중심으로 13개 지역 결성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단체협의회(55개 단체)와 협동사업 적극 모색

8.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실시

가. 추진현황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대상별 통일교육 시행
 - 교사/공직자/남북교류협력/방북자안내교육/특별과정 등 5개과정으로 나누어 통일교육 실시(금년중 약 16,000명 예상)
 - * 6월말 교육수료생(8,499명)중 방북자교육이 약 58%(4,928명)
- 특히 청소년 학생층의 통일무관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통일교육」을 강화('04.1.31 사이버교육과 신설)
 - * 금년부터 전국 교사 대상 「사이버통일연수」 실시
- 알기쉬운 각종 통일교육교재 개발
 - 「통일문답」, 「북한방문길라잡이」등 새로운 남북관계·통일환경을 반영한 교재(특히 영상교재) 개발·보급

나. 추진계획

-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영상자료/방송 등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을 계속 강구
 - 교사 대상 「사이버 통일연수」 교육 확대 추진
 - 「통일교육 시범학교」 지원, 교사용 영상교재 개발 보급
 -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www.uniedu.go.kr)를 통해 「통일 Q&A코너」등 청소년 대상 다양한 콘텐츠 지속 보완
 - 방송사들의 청소년 퀴즈프로그램에 통일관련 문제출제를 지원 협조

○ 민간 통일교육의 활성화 도모

- 금년부터 「지역통일교육센터」(부산/광주)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기회 확대
- 「통일교육협의회」등을 통해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활동 지원

○ '05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보완 발전

-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내용의 체계와 지도원칙을 보완 발전
- 기존의 일반교육용 지침서와 함께 청소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교사용 통일교육지침서를 별도로 개발

○ 통일교육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추진

- 통일교육 기준 구체화, 통일교육단체들의 공공시설 활용 기회 확대, 지역주민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지역통일교육센터」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추진

* 17대 국회제출('04.6.3)

9. 경수로사업 재개 노력

가. 추진현황

- '03.12.1 사업의 일시중단 발효에 따라 공정을 중단하고, 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보존·관리 조치 실시중
 - 부지현장에서는 한전·시공사·경비요원 등 120여명이 부지현장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 활동을 시행중
 - 부지 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8회) 및 품질 보증검사(6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 * 경수로사업 건설 현황('03.11월말 기준) : 종합공정 34.5%
 - * 건설공사비 집행현황('04.6월말 기준): 15.1억불(한국 11, 일본 3.9, EU 0.2)
- 보존·관리조치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집행이사회 수시 개최 등 집행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
 - 보존·관리활동 및 관련상황 점검, 추가비용 재원조달 등
- 중단기간중 북한의 협조 확보 등을 위해 대북협상 추진
 - KEDO사무총장 방북('03.10월),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회의(2회) 및 실무협의를(4회) 개최 등
 - 양해각서(MOU) 체결('04.3월)로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은 확보하였으나, 장비반출금지조치는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

나. 추진방향

- 중단기간중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경수로사업 재개 및 남북간 교류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처
 - 보존·관리활동 관련 집행이사국 및 양자 차원의 긴밀 협의 지속 추진
 - 장비반출 금지조치 철회, 체류인원 신변안전 등 중단기간중 KEDO활동에 대한 북한의 협조 확보
 - 사업의 장래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상황 등을 보아가며 사업 재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기투입비용, 경수로사업의 남북관계 기여도, 북핵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시 사업의 완공으로 이끌어 갈 필요
- * KEDO 집행이사회('03.11.21)는 중단기간 만료('04.11.30)전에 사업 장래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

10. 남북협력기금 운용

가. 기금조성 및 운용

- 남북협력기금은 '91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총 4조 4,610억원을 조성하여 3조 7,141억원을 사용하였고, 7,469억원을 보유
 - 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 남북 철도·도로연결, 경협 자금대출, 경수로공사비 대출 등에 사용
-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01년부터는 사업비(경수로 제외) 집행실적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
 - 2,541억원('01) → 3,485억원('02) → 4,420억원('03)

<주요사업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식 량 차 관	1,057 (50만톤)	-	1,266 (40만톤)	1,262 (40만톤)
비 료 지 원	944 (30만톤)	639 (20만톤)	833 (30만톤)	836 (30만톤)
철도·도로연결	146	899	669 (323*)	1,121 (474*)
이 산 가 족 교 류	28 (2회 상봉)	13 (1회 상봉)	20 (2회 상봉)	30 (3회 상봉)
교역·경협자금대출	5	460	361	187

(* : 대북 자재장비 지원금액)

- '04년도 기금운용계획(경수로 제외)상 총 예산규모는 5,995억원
- 집행실적(5월말 기준)은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587억원 등 총 802억원

<'04년도 주요사업>

- ① 식량·비료 등 대북지원(2,840억원), 민간단체 대북사업 지원(100억원)
- ② 개성공단 기반시설 공사 지원(470억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지원(1,479억원)
- ③ 이산가족면회소 설치(300억원),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47억원)
- ④ 교역·경협자금 대출(450억원), 손실보조제도 지원 (50억원)
- ⑤ 남북간 인적왕래 활성화 지원(50억원),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지원(75억원) 등

나. 향후 운용방향

- 남북관계발전에 따라 기금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간 기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금의 주재원인 정부출연금 규모를 늘려나갈 필요
- 남북협력기금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여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유도
- 국회보고 등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금집행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노력 지속

Ⅲ.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관한 보고

1. 식량차관 제공

- 제9차 경추위(6.2~5, 평양)에서 쌀 4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
 - 오늘 국회 보고 후 남북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세부합의 및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대북 쌀지원 실적>

구 분	'95년	'00년	'02년	'03년
지원물량	쌀 15만톤 (국내산)	쌀 30만톤(태국산) 옥수수 20만톤(중국산)	쌀 4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국내산)
지원조건	무상	차관	차관	차관

- 우리측 쌀 재고 여유분을 감안, 국내산 쌀 10만톤과 외국산 쌀 30만톤으로 제공
 - 쌀의 차관단가는 최근 국제시세로 대북 협의
 - 외국산 쌀의 구매국, 구체적 출항시기 등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 제공시기는 북한 식량사정을 감안 국내산 쌀부터 조기 선적 계획
 -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약 1,626억원)과 양특회계(약 1,500억원)에서 분담
 - 분배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쌀 제공자 표시, 분배결과 통보 및 현장 확인 등
- * '03년에는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자 한글 표기(쌀, 40kg, 대한민국), 분배결과 통보 및 현장 확인(6지역, 12회) 실시

2. 세계식량기구(WFP) 대북사업 참여

- 정부는 WFP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위해 매년 10만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
 - * 금년에도 WFP는 총장서한(1.6)과 통일부 방문(6.23)을 통해 조속한 지원을 요청
 - * WFP의 금년도 지원계획 : 1.7억불 (48.5만톤)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국제기구 요청을 고려, 현물(옥수수 10만톤, 2,400만불)로 지원할 계획
 - WFP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후 8~10월중 전달

3. 용천재해 복구용 자재장비 지원

- 정부는 사고(4.22)직후 용천재해 긴급구호와 복구지원을 결정(4.24)
 - 북측은 당국간 회담(4.27)에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식요청
 - * 품목은 건축자재, 건설장비, 식량 등 (310억원 상당)
- 시스저비노 이리 최지이 그미서그키 키즈모포 드스크 총당하고 부족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국민성금 최종확정(7월중)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 예정 (잠정적으로 50억원 이내 추정)

☐